



고려대학교의료원
KOREA UNIVERSITY MEDICINE

보 도 자 료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1 고려대학교의료원 커뮤니케이션팀 T:(02) 3407-2064/F:(02) 920-5010

수 신 인	의학기자단	발 송 일 자	2022. 4. 21.
병 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발 송 매 수	2매
교 수	-	자 료 담 당	유기훈(02-3407-2064)

"COVID-19 이후의 팬데믹을 준비한다"

고려대학교 - 반기문재단,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공동운영 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에 나선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19일 '재단법인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사장 반기문; 이하 반기문재단)'과 'BKM Global Health Platform(이하 플랫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소재 반기문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은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 김영훈 의무부총장을 비롯해 반기문재단 반기문 이사장, 김숙 상임이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해당 플랫폼은 반기문재단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8월 개발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존 감염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출처에 기반한 최신의 정보를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 등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등 의학, 보건학, 약학, 사회학, 수학 등의 분야를 망라한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Eminent Group)이 참여하고 있어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반기문재단은 상호협력하에 플랫폼 운영유지 및 활성화에 매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을 예측하고 대비해 글로벌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플랫폼에서는 국제기관 및 교육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현황을 비롯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전망, 국제보건규칙 개선 방향(IHR 2005)과 ICT 기반 대응 시스템 등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제반 실무사항은 고려대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소장 :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담당하게 된다.

반기문 이사장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올지 알 수 없다. 고려대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음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진택 총장은 “미래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를 예측하고 대비해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숭고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일평생 더 나은 국제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해당 플랫폼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강력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1 :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우측)과 반기문재단 반기문 이사장(좌측)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설명 2 : 고려대학교와 반기문재단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고려대학교 김영훈 의무부총장, 정진택 총장, 반기문재단 반기문 이사장, 김숙 상임이사>